

씨름관련 연구 동향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김산(전북대학교 체육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김동수(전북대학교 박사수료)**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1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씨름을 대상으로 한 학위논문을 분석하여 기존의 씨름관련 연구의 체육사적 의미를 고찰함에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적인 신체문화로서 씨름에 관한 연구 방향을 탐색하였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한국 씨름은 지금까지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신체문화이었으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씨름에 대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 처음 연구가 시작되었던 1970년대에는 체육 교육의 종목으로서 그 가치를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1980년대에는 프로 스포츠로서 이를 관리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발현되어 연구들이 진행된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후 2000년 초기 씨름의 인기가 쇠퇴되어갔으나 2006년 기점으로 다시금 도약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 시기에는 다양한 학술적 방법이 사용되는 연구들이 진행된 것을 고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현재 씨름이란 종목은 한국 체육학의 연구 대상으로서 확실히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신체문화로서 다른 지역의 유사 신체문화와 운동학적이며 문화적 동질감과 독창성을 비교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신체문화와 비교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주제어 : 씨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연구동향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임 (NRF-2020S1A5B5A16083774)

**denl1887@naver.com

I. 서 론

맨몸의 건장한 사람들이 상체를 들어낸 상태에서 상대를 가격하지 않고 상대와 힘과 기술을 겨루는 한국의 씨름은 신체의 탁월성을 겨루는 대표적인 신체문화이다. 물론 서양의 레슬링이나 몽골의 브흐, 일본의 쓰모와 같이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신체문화들이 존재하지만 씨름은 한국의 대표적인 신체문화로서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가 되었으며, 2018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되었다.

특히 씨름은 전통적인 한국의 무예이자 놀이로서 그 역사가 오래 되었을 뿐 아니라 많은 전통문화가 단절되던 일제시기에서도 인기 있는 종목으로 유지되었고, 광복 이후에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 받는 종목이었다. 이러한 인기로 인해 1982년에는 민속씨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1983년 4월 14일 ‘제1회 천하장사씨름대회’가 개최되면서 전문적인 프로 스포츠로서 민속씨름이 시작되었다. 이어 1984년도에는 일양 약품, 보해양조, LG금성 1985년에는 현대 상호증공업, 1987년에는 삼익가구, 1988년에는 조홍금고, 1992년 청구, 1995년에는 세경진흥, 한보철강, 진로, 1997년에는 동성건설, 1999년에는 강원태백건설, 2000년에는 신창건설, 지한정보통신 등 굴지의 기업에서 프로 씨름단을 운영하는 등 그 인기는 대단하였다.

물론 1997년 외환위기 영향으로 프로씨름단을 운영하던 기업들이 경영난으로 인해 프로 씨름단이 해체되었고, 씨름단은 실업팀으로 전향하게 되면서 그 인기는 많이 퇴색하였으나 현재 까지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 중 하나이다.

학술적으로도 씨름에 대한 연구는 체육학이나 민속학적인 분야에서 많이 시도되었다. 2021년 1월 20일자 Riss 검색에서 씨름이라는 주제어로 검색하였을 때 학술논문은 736개, 학위 논문은 562개가 검색되었다. 이 많은 연구물은 각각의 연구가 진행되었을 때 씨름이라는 신체문화 갖는 체육학적 의미를 보

*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 지정일: 2017.01.04

여준 것이라고 할 것이다. 즉 연구가 진행되었을 시기에 씨름이라는 연구대상에게 요구되는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현재의 씨름은 한국의 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 높은 위상을 지니고 있으며 그 위상에 맞는 연구를 고민하는 것은 씨름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일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까지 씨름이라는 연구 대상에 대한 시대적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 씨름에 대한 연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씨름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피는 연구는 2013년에 시도된 허용·박승한의 「씨름연구동향 분석」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단지 연구의 분야와 그에 따른 편수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로서 씨름 연구가 갖는 각 시대적 의미를 고찰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씨름관련 연구가 가지는 체육사적 의미를 고찰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씨름에 관한 연구가 시작한 1960년대부터 최근 2021년 까지의 연구를 각 시대 별로 연구의 내용을 분석하고 각각의 연구가 시도되었던 시대적 배경을 고찰하여 각 시대의 연구들이 갖는 의미를 찾아보고자한다. 이를 통해 세계의 신체문화가 된 씨름에 관한 연구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만들고자 한다.

본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연구편수가 적어 함께 고찰하고, 1980년대와 1990년대, 2000년대 이후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학술 논문과 학위 논문을 모두 분석하기에는 그 양이 방대하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단 1980년대 이전의 연구들은 분량이 적은관계로 학술 논문도 함께 분석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연구물들을 역사,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철학, 생리학, 측정평가, 정책과 같이 학술분과 관련의 연구와 씨름의 특성인 사용 기술과 상해 그리고 분류하기 어려운 분야를 기타로 분류하여 진행하였다.

* 중앙일보 2018.11.26일자

II.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씨름 관련 연구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검색한 씨름에 관한 연구 중 첫 연구는 1965년 충남대학교 논문집에 실려 있는 이철희(1965)의 「한국씨름에 관한 소고」이다. 이 연구는 학술 논문이며 이후 씨름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에는 총 13편의 학술논문과 6편의 학위논문이 쓰여 졌다. 이 중 학술논문에는 교육학 관련 연구인 이완희(1970)의 「한국 씨름의 育的 고찰」과 역사 관련 연구인 최상수(1972)의 「우리의 민속경기를 살펴보면 : 현대씨름 경기의 발자취와 그 방향」, 나현성(1972)의 「한국 角抵(씨름) 收」, 이철희(1972)의 「한국 씨름에 관한 연구」, 인영환(1977)의 「한국 교유의 씨름에 관한 사적 고찰」, 이재길(1977)의 「국기(씨름) 경기발달 과정의 연구」가 있었다. 이어 씨름의 철학 관련 연구인 이철희(1972)의 「민속경기로서 씨름의 체육적 가치에 대한 고찰」이 있다. 그 밖에도 이철희에 의해 연구된 2편의 일본 쓰모와 비교하는 민속학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강용호(1976)의 「씨름 경기에 미치는 운동적성」이라는 측정평가 관련 연구도 진행되었다.

학술 연구들은 주로 역사와 철학, 교육학 그리고 민속학적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씨름이라는 한국적 신체문화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연구들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씨름의 역사는 물론이고 씨름과 유사한 일본의 쓰모 관련 연구는 씨름이 갖는 독자적 특성을 들어나게 하는 연구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학위 논문에서는 총 6편의 연구 중 교육학 관련 연구가 2편이며 측정평가 3편 그리고 1편의 씨름의 기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교육학에 관한 연구는 이천수(1972)의 「씨름집단지도방법의 일 연구」, 김성율(1975)의 「씨름 경기의 효과적 지도방법 연구: 초보자의 기술개발을 중심으로」가 있었고, 측정평가적 연구에는 강용호(1976)의 「씨름경기에 미치는

운동적성」, 박승한(1977)의 「씨름에 있어서 체격, 체력, 기술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낙관(1979)의 「경기운동에 있어서의 균력평가와 유연성에 대한 비교 연구: 고교 유도, 레슬링, 씨름 선수를 대상으로」가 있고, 기술관련 연구에는 김학웅(1977)의 「씨름경기에 있어 전문기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가 있다.

모두 석사학위 논문이었으며, 당시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으로써 씨름을 체육 교육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연구들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김성율과 김학웅은 1960년대부터 실제 씨름 선수로서 왕성한 활동을 한 이들이며* 이후 대학에서 후진을 양성한 교육자들로 이들은 대학에서 씨름의 지도법과 씨름의 실재라 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것은 교육적 관점 즉 체육 교육 종목의 하나로서 씨름의 특성을 체육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라고 할 것이다.

III. 1980년대 씨름에 관한 연구

1980년대 씨름은 점차 전문적인 프로 스포츠로 자리 잡아 가는 시기였다. 1982년 4월에 발족한 민속씨름위원회는 1983년 3월에 출범하였고,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제 1회 천하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하면서 프로 스포츠인 민속 씨름대회가 시작한 것이었다.

이 시기는 제1회와 2회 천하장사를 차지한 이만기로 시작하여 이준희, 이봉걸과 같은 결출한 씨름꾼들의 활약으로 설날과 추석과 같은 시기에 TV에서 정규적으로 반영되던 민속씨름의 전성기가 시작하던 시기였다.

물론 1982년에 프로 야구와 1983년 프로 축구가 시작하던 1980년대는 한국 프로 스포츠가 시작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스포츠가 아닌 한국 전통의 스포츠가 전문적인 프로 스포츠로 발전한 것은 당시 씨름에 대한 인

* 김학웅(2009), 『김학웅의 씨름이야기』, p.42, 153.

식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씨름의 높은 관심과 인식에 비해 그리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이 시기 학위논문을 보면 역사 관련 3편, 심리학 관련 2편, 철학 관련 1편, 측정평가 관련 11편, 생리학 3편, 역학관련 1편, 그리고 씨름 기술에 관한 10 편의 논문 그리고 기타 2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역사관련 연구에는 이장균(1982)의 「한국각저(씨름)의 발전상에 대한 고찰」, 유오근(1984)의 「우리나라 민속씨름의 시대적 발전과정에 관한 고찰: 근대이전을 중심으로」, 김영열(1989)의 「우수 씨름선수의 궤적 조사: 지도자에 대하여」 등이 진행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존의 1970년대의 기본적인 연구의 흐름과 유사하지만 김영열의 연구에서 보면 씨름 지도자라는 씨름의 부분적인 요소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진행된 것이 독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1980년대에 처음 시도된 심리학 분야의 연구로는 성석윤(1986)의 「정신연습이 배근력 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 고교 씨름 선수를 중심으로」, 이용규(1989)의 「심리적 연습이 체력증감에 미치는 효과: 초등학교 씨름선수 중심으로」 등이 진행되었다. 실제 운동과 함께 심리적, 정신적 연습이 체력에 미치는 연구들로 씨름 선수를 대상으로 한 심리적 훈련법에 대한 연구들이다.

철학 관련 연구에는 최창옥(1986)의 「씨름선수의 자기평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측정평가분야에서는 장상교(1984)의 「잡는 것에 의한 운동선수의 능동악력과 수동악력의 비교연구: 유도, 씨름, 역도선수를 중심으로」, 김경섭(1984)의 「신체구성면에서 본 씨름선수의 근력분석」과 같이 씨름 선수의 악력과 같은 근력에 관련한 5편의 연구와 김형일(1986)의 「씨름선수의 체격 및 체력과 신체구성에 관한 연구」와 같은 체형이나 체력과 같은 신체적 요소가 씨

* 1980년대 학술논문은 역사 관련 6편, 민속 관련 1편 연구와 측정평가관련 7편, 역학관련 4편, 상해 관련 2편 그리고 씨름의 전문적 기술에 관한 8편이 그리고 기타 2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름선수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4편과 균력과 신체구성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전문적인 스포츠로서 씨름 선수 선발과 선수 관리에 필요한 요소들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생리학 관련 연구인데 생리학 연구 역시 1980년대에 처음 시도된 연구이다. 연구는 김대건(1988)의 「씨름, 레슬링선수의 체격 및 심폐지구력과 근 지구력에 관한 연구」와 최동욱(1989)의 「씨름선수의 영양 상태분석: 체중을 감량하는 고등학생을 중심으로」와 권홍섭(1989)의 「씨름, 레슬링선수의 체격 및 심폐지구력과 근 지구력에 관한 연구」가 있다. 김대건과 최동욱은 같은 동국대학교 출신으로 같은 제목의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신체구성 조건인 체격과 운동에 기본이 되는 신체능력인 심폐지구력과 근 지구력과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최동욱의 연구는 체급이 있는 스포츠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감량에 관한 생리학적 고찰로 의미가 있다. 이처럼 씨름 선수의 심폐지구력과 근 지구력과 같은 기초적 신체 능력에 관한 연구와 체급을 위한 감량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프로 스포츠로서 씨름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역학관련 연구 역시 처음 시도되었는데 최지호(1989)의 「씨름 둘째지기의 균전도 분석」이 연구되었다.

1980년대 기술에 관한 연구는 모근배(1984)의 「씨름 경기 기술이 승패에 미치는 영향」, 이중근(1987)의 「씨름경기의 승부 기술에 관한 실태연구」, 정위곤(1988)의 「대학씨름 선수와 민속씨름 선수의 체급별 사용기술 분석에 관한 연구」와 같이 선수들이 사용하는 기술에 관한 분석, 특히 승부를 결정하는 승부기술에 대한 연구들과 김영구(1989)의 「씨름경기의 선제공격이 경기 성적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선제공격과 승부에 대한 연관성을 고찰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 김달우(1998), 「한국 체육학 발전 과정의 역사적 고찰-한국체육학회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pp. 6-7, 당시가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며 한국 스포츠과학의 진흥방안들이 모색되었고, 이를 계기로 한국체육학회와 산하 분과학회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기 시기였다.

또한 박상욱 (1985)의 「지압요법시술을 전후한 유연성에 관한 연구 : 유도 및 씨름선수를 중심으로」, 장국봉(1985)의 「씨름기술 용어의 분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상의 1980년대 연구들을 살펴보면 1970년대 학술논문으로만 시도되었던 역사, 철학, 역학 관련 연구들이 학위논문으로 진행되었고, 심리학, 생리학관련 연구가 처음 시도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역사, 철학, 심리학, 생리학, 역학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한 학위 연구물이 등장하였고, 1970년대 1편이 연구되었던 기술관련 연구가 10편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점과 장국봉의 씨름 기술용어 분류와 같은 씨름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시도되었다는 것은 씨름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1990년대 씨름 관련 연구

1990년대는 프로 스포츠로서 씨름의 전성기이자 동시에 씨름이 퇴락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할 것이다. 1991년 2월 대한씨름협회와 민속씨름협회가 완전 분리 되면서 프로 스포츠로서 민속 씨름은 한 해에 3차례의 천하장사 대회, 7차례의 체급별 장사대회를 개최하였고, 프로팀간의 단체전도 실시하면서 프로 스포츠로서 자리매김 하던 시기였다.* 이후 1995년에는 매년 3회 개최하던 천하장사 대회를 1회로 변경하여 천하장사의 권위를 높이는 등 씨름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호주에 씨름을 소개하고 1995년 3월에 부산 구덕 체육관에서 씨름과 유사한 종목인 러시아의 삼보, 몽골의 브흐, 스페인의 루차카나리아 선수들 초청하고 그들과 교류를 하였다.

그러나 IMF라는 경제적 상황에서 8개의 프로 씨름 팀 중 5개의 팀이 해체되었다.** 프로 스포츠로서 씨름의 몰락은 이후 2000년대에도 계속되어 결

* 김종규(1999), 「한국 씨름의 체육사적 의미에 관한 연구」, pp. 41 - 45.

국 프로 스포츠로서 씨름은 종말을 맞게 되었다.

이와 같이 씨름의 홍망이 있었던 1990년대 씨름에 관한 학위논문을 보면 역사관련 4편, 철학 관련 1편, 사회학 관련 5편과 심리학 관련 9편, 생리학 관련 9편, 측정평가 관련 3편, 역학 관련 2편 그리고 기술에 관련한 16 편, 상해 관련 4편의 논문들이 진행되었다.*

역사 관련 연구에는 구성우(1996)의 「근대이후 씨름경기 발달사에 대한 연구」, 최종삼(1997)의 「무도 경기 규정의 변천 과정에 관한연구」, 이형표(1997)의 「씨름의 근대화에 관한 연구」, 이재학(1998)의 「민속놀이의 체육사적 의미에 관한 연구」, 김종규(1999)의 「한국 씨름의 체육사적 의미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 중 구성우와 최종삼, 이형표의 연구는 경기로서 씨름에 관한 역사적 고찰이었으며, 이재학과 김종규의 연구는 씨름의 통사적 관점으로 특히 김종규의 연구는 1990년대 변성했던 시기와 몰락하는 시기 씨름의 체육사적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씨름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은 이 시기에 처음 진행되었는데, 허형숙(1994)의 「스포츠 사회화 주관자가 씨름선수 역할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임성숙(1997)의 「직무만족 및 공정성과 직무성과의 관계 : 프로씨름선수의 개인 성적을 중심으로」, 오범태(1999)의 「한국 프로씨름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연구」, 한석(1999)의 「온퇴한 씨름선수들의 선수경력과 사회적 적응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다양한 주제로 시도가 되었다.

철학관련 연구에는 김목경(1994)의 「한국 씨름의 스포츠적 성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한국적 특성을 지닌 씨름에 대한 스포츠로서 정체성을 탐구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 1997년 부산조흥씨름단, 한보씨름단, 세경진흥씨름단, 청구씨름단이 해단되었고, 1998년에는 동성 씨름단이 해단 되었다. 이로서 1999년에는 현대 코끼리 씨름단, LG 황소 씨름단과 1999년에 창단된 삼익 파이낸스 씨름단, 태백건설 씨름단과 함께 4대 씨름단으로 프로 경기를 운영하게 되었다.

* 학술논문은 민속학관련 16편, 역사 관련 6편, 철학 관련 1편, 사회학 관련 1편, 심리학 관련 3편, 생리학 관련 17편, 측정평가 관련 1편, 역학 관련 4편, 기술 관련 2편, 상해 관련 3편, 기타 연구 3편이 연구되었다

심리학 관련 연구에는 김상초(1991)의 「심리적 불안이 운동경기에 미치는 영향 : 국민학교 씨름선수를 대상으로」, 유수환(1993)의 「심리적 불안이 씨름의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불안요소와 씨름 경기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종국(1991)의 「씨름선수의 체력 및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강용호(1993)의 「씨름선수들의 기능수준에 따른 반응시간 및 인지 심리적 특성」과 같은 씨름선수의 심리적 특성을 탐구하는 연구와 김준태(1998)의 「자신감이 씨름경기 승패와 귀인형태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귀인이론을 적용한 다양한 심리학적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즉 1980년대 연구에 비해 1990년대에는 씨름 선수의 심리적 특성, 불안 요소와 씨름 경기력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귀인이론으로의 접근과 같이 실제적인 스포츠 심리학 연구의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생리학 관련 연구는 체중 감량과 체격, 심폐지구력과 근 지구력과 같은 신체 능력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던 1980년대 연구와 거의 유사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체중 감량에 관한 연구에는 최동욱(1990)의 「씨름선수의 영양상태분석: 체중을 감량하는 고등학생 중심으로」, 배오석(1990)의 「씨름선수의 체중조절에 관한 일 연구」, 이종태(1997)의 「씨름 선수의 체중감량에 관한 실태 조사 분석 연구」 등과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신체능력에 관한 연구에는 손상주(1993)의 「민속씨름 선수의 체격 및 등속성 균력에 관한 연구」, 오광훈(1998)의 「중,고 씨름 선수들의 심폐기능에 관한 연구」와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또한 권희두(1992)의 「씨름 선수의 체중 감량이 체력변화에 미치는 영향」, 박수원(1996)의 「씨름 선수의 체중감량이 체력에 미치는 영향 : 고등학교 씨름선수를 중심으로」와 같이 체중감량과 신체 능력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민속 씨름 경기의 환경에 관한 정위곤(1997)의 「민속씨름 경기

* 이승도(1998), 「씨름 선수들의 경력과 체급이 경쟁상태 불안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장의 실내 공기오염과 선수들의 신체적 자각증세에 관한 연구」와 훈련을 통한 씨름 선수들의 신체 변화에 관한 손원호(1999)의 「씨름선수들의 동계훈련이 혈중 지질, 지단백 및 효소활성도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연구도 진행되었다.

측정평가 관련 연구는 김경(1990)의 「중, 고등학교 씨름선수의 체급별 체격, 체력 특성연구」와 이상훈(1996)의 「12주간 서킷트레이닝이 체력향상에 미치는 영향」, 김한수(1997)의 「프로씨름 선수의 신체구성과 체형분석」, 으로 앞서 진행되었던 1980년대 연구와 같이 씨름선수의 신체구성인 체격, 체형에 관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역학 관련 연구에는 공성배(1996)의 「씨름선수의 준비 동작시 양발 간격에 따른 반응시간에 대한 비교연구」와 성동윤(1998)의 「씨름 선수의 중심고와 체격 및 경기 선적간의 관계」가 진행되었다.

기술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보다 더 많은 16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강치진(1991)의 「중학교 씨름경기의 체급별 사용기술 분석」, 이승삼(1994)의 「민속씨름의 연도별 세대간의 기술분석」, 조극래(1996)의 「학생(초, 중, 고, 대) 및 민속씨름 선수들의 기술에 관한 연구: 1995년도 소년체전, 전국체전 천하장사 대회중심으로」와 같이 1980년대와 어느 정도 유사하지만 연구 대상의 영역이 넓어지고 분화된 형식으로 체급이나 선수층간에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이다. 물론 김철환(1994)의 「살바잡기가 씨름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씨름 시합에 있어 문제가 되었던 살바잡기와 경기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나 이기수(1995)의 「민속 씨름선수들의 경기 기술이 선수 수명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씨름 선수의 기술 유형과 선수 수명과의 연관성을 고찰하는 세부적인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당시 씨름 경기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들로 볼 수 있다. 즉 시합 전 서로 신경 전을 벌여 경기운영을 어렵게 하는 살바잡기 싸움과 경기 중 부상과 이를 통한 조기 은퇴로 인해 야기 되었던 민속 씨름 선수 부족과 같이 전문 프로 스포츠로 발전하던 1990년대 중반에 자주 노출되었던 문제로 인해 진행되었던 연구들인 것이다.

다음으로 상해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상해에 관한 연구는 학술논문에서는 1980년대부터 진행되었으나, 학위논문은 1990년대부터 진행되었다. 김상석(1991)의 「유연성과 Sports 외상에 관한 연구 : 중학교 씨름선수의 하지관절을 중심으로」, 김영석(1996)의 「씨름에 의한 상해의 특성과 치료 실태에 관한 조사 분석」, 김준희(1997)의 「씨름선수의 상해에 관한 연구」, 김성진(1999)의 「씨름의 체급별 상해에 관한 연구: 민속씨름 선수를 중심으로」 등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들 중 김영석과 김준희의 연구는 상해 전반적인 연구에 비해 김성진의 연구는 체급별 그리고 민속씨름 선수라는 보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진행된 것을 살필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전문적인 프로 스포츠로 민속 씨름이 존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 시기에는 김광식(1991)의 「씨름경기의 살바개선에 관한 연구: 민속씨름을 중심으로」, 황선명(1996)의 「씨름경기의 준비동작유형이 경기내용에 미치는 영향」, 김칠규(1997)의 「민속씨름에 관한 남자 중, 고등학교 학생의 비교연구」, 고영희(1999)의 「고구려 고분벽화의 신화학적 고찰」 와 같은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이상으로 1990년대 씨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 시기는 프로 스포츠로서 씨름의 위상이 높았던 시기로 씨름의 연구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존재했던 시기였다. 즉 기존의 1980년대 사용했던 연구 방법에 사회학과 상해 관련 연구가 새로이 시도되었으며, 기존의 연구보다 전문적인 주제와 이론을 사용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던 시기였다.

V. 2000년 이후 씨름 관련 연구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프로 씨름이 몰락하게 되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의 씨름은 몸무게를 잔뜩 불린 선수들이 자신의 몸무게를 이용한 힘겨루기 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씨름의 모습은 일반 대중들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하

였고, 일부만 즐기는 씨름으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씨름은 2006년 민속씨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대한씨름협회 민속씨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민속대회인 용인설날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하면서 재도약을 꿈꾸었고, 2008년부터 대전일반 씨름단, 2009년 태안군청 영월군청, 부천시체육회 씨름단 등의 실업팀이 창단하게 되었다.

2010년대는 씨름이 다시 비약하는 시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대 씨름은 2011년 판정의 정확함을 위한 비디오판독 도입을 시작으로 기존 씨름이 보여주던 몸무게를 불린 씨름 선수들의 힘자랑이 아닌, 탄탄한 기술을 바탕으로 경량급의 태백급, 금강급의 선수들이 인기를 끌면서 다시금 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2019년 KBS에서 방영한 태백에서 금강까지 – 씨름의 희열*이라는 KBS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화려한 기술과 스피드를 자랑하는 태백급, 금강급 씨름 선수들의 인기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2015년에는 콜평 여자씨름선수단이 창단되면서 여자팀들의 수도 늘어나게 되었고, 2018년까지 정읍시청, 거제시청, 안산시청, 화성시청 여자씨름단이 순서대로 창단되면서 그 관심이 높아졌다. 2020년에는 민속씨름대회를 10개 대회로 확대 개최하면서 민속씨름의 활성화를 높이고 다시금 전성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2000년대 이후 씨름에 관한 학위논문에는 역사 관련 18편, 철학 관련 5편, 사회학 관련 25편, 심리학 관련 36편, 교육학 관련 14편, 생리학 관련 25편, 측정평가 관련 8편, 역학 관련 13편, 민속학 관련 7편, 정책 관련 6편, 기술 관련 22편, 상해 관련 13편 그리고 4편의 기타 연구가 진행되었다**.

* 2019년 11월 30일부터 2020년 2월 22일까지 KBS에서 방영한 씨름 예능 프로그램

** 학술연구는 역사관련 33편, 철학관련 8편, 사회학 관련 41편, 심리학 관련 46편, 교육학 관련 13편, 생리학 관련 23편, 측정평가 관련 1편, 역학 관련 9편, 민속학 관련 25편, 정책관련 11편, 기술관련 11편, 상해 관련 9편, 기타 12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역사관련 연구에는 한재봉(2000)의 「근대이후 한국씨름의 변천과 발전과제」, 이태현(2001)의 「민속씨름 경기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로서 최근의 씨름에 역사에 관련한 연구와 조민동(2001)의 「한국체육에 YMCA 체육활동이 미친 영향」, 최성덕(2005)의 「YMCA의 활동이 한국 사회체육에 미친 영향」과 같이 일제 강점기 YMCA의 활동 중국궁과 함께 민족 스포츠로서 발전한 씨름에 대한 역사적 내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지준만(2000)의 「한국 고대 씨름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나 신영호(2007)의 「한국무예 변천사 연구」, 김중수(2009)의 「한국 근대이전 맨손무예의 발달과정 연구」, 정은정(2010)의 「동아시아 역기(力技)의 역사와 연행양상」의 연구들은 통사적 관점에서 씨름의 역사를 고찰한 연구들이다. 이런 문헌연구 방법의 연구들과 함께 강종학(2013)의 「중국조선족 체육인의 생애와 정체성 변화」, 이슬기(2018)의 「민속씨름선수의 삶 탐색」과 같은 구술사 방법의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즉 2000년대 이후의 씨름에 대한 역사관련 연구를 보면 근대와 고대 그리고 통사적 관점에서 씨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연구 방법에서도 문헌연구 뿐 아니라 구술사 방법 등이 사용된 것은 체육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하나의 의미 있는 연구 대상으로 씨름이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살필 수 있다.

철학 관련 연구에는 정민혁(2002)의 「씨름의 미학적 고찰」, 강건중(2003)의 「씨름선수들의 훈련을 통한 도덕성 함양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지역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전민주(2004)의 「씨름선수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민상근(2010)의 「씨름의 원류와 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조봉만(2019)의 「중학교 씨름부 학생선수들의 경험과 의미」와 같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씨름의 정체성이라는 원류를 고찰하는 민상근의 연구나 미학

* 또한 YMCA 활동의 연구와 같은 시기인 개화기부터 일제 강점기 시기 씨름의 역사적 연구로는 박상석(2012), 「구한말 운동회 연구」와 최성대(2005)의 「개화기이후 씨름과 궁술의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 1880년 - 1945년대를 중심으로」도 진행되었다.

적 고찰과 같은 순수 철학적 고찰과 함께 씨름 훈련을 통한 도덕성 함양과 같이 씨름 경험이 갖는 의미와 가치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사회학 관련 씨름 연구는 크게 씨름의 마케팅적 요소에 대한 연구^{*}와 스포츠맨십과 같은 여러 사회학적 요소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윤여경(2003)의 「씨름 대중매체의 홍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동현(2003)의 「민속씨름을 통한 마케팅 전략이 스포츠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김택권(2004)의 「대학연맹 씨름활성화에 관한 마케팅 분석」, 공성배(2009)의 「민속씨름 중계방송이 수용자 만족과 재시청 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스포츠 산업으로서 씨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박공선(2004)의 「씨름 지도자의 직무환경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구자원(2009)의 「청소년 씨름선수 합숙생활의 긍정적, 부정적 요소」와 같은 씨름으로만 들어지는 사회 환경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상효(2007)의 「실업씨름 선수의 여가활동 유형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황대영(2015)의 「씨름 동호인의 여가만족도가 운동 몰입 및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여가 활동관련 연구, 박태훈(2009)의 「격투스포츠 선수의 스포츠맨십 분석」, 차승진(2016)의 「씨름선수들의 자기관리행동과 스포츠맨십이 조직유효성과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스포츠맨십 요소와 관련한 연구, 김민호(2004)의 「초등학교 운동선수의 비행에 관한 연구」, 탁종화(2011)의 「씨름 선수의 중도탈락과 사회적응에 관한 질적연구」, 김주한(2015)의 「대학 씨름선수의 팀 응집력과 스포츠 일탈 관계」와 같은 일탈과 같은 탈사회화에 관련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 장진혁(2007)의 「이종격투기와 이미지 비교를 통한 민속씨름 마케팅 요인분석」

** 김태영(2011), 「씨름대회 관람동기와 개최도시 이미지 및 태도가 관람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성준(2015), 「씨름경기장의 물리적 환경이 관람만족 및 관람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건호(2017), 「민속씨름대회 관람동기가 관람만족 및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

2000년 이후 초기 심리학적 연구를 보면 1990년대 연구의 흐름과 유사한 불안요소, 경쟁요소, 스트레스 요소, 운동 탈진과 같은 요소와 같은 씨름 선수의 부정적 심리 상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즉 김경수(2001)의 「씨름 선수들의 경쟁불안에 관한 연구 : 고등학교, 대학교, 프로씨름선수를 중심으로」, 강병호(2002)의 「대학 씨름 선수의 경쟁상태가 심리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김동혁(2002)의 「씨름선수의 스트레스 유발요인 및 대처방법분석」 와 같이 경쟁요인으로 인해 형성되는 불안과 스트레스, 운동탈진*과 경기력과의 관계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라고 할 것이다. 이후 씨름선수들의 내적동기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반영중(2004)의 「중학교 씨름선수들의 지각된 내적 동기 성향분석」, 최석호(2006)의 「청소년 씨름선수의 운동재미요인과 내적동기 수준비교연구」와 같이 재미요소나 스스로 자각 하는 것에 따른 내적동기연구와 함께 장창영(2009)의 「씨름지도자 리더십 행동유형과 내적동기에 관한 연구」, 유승록(2009)의 「씨름 지도 행동 유형과 성취목표지향성의 관계」 와 같이 지도 유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지도유형과 관련한 연구는 다른 요소와 관계로도 진행되었는데, 즉 이승희(2010)의 「씨름경기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이 선수만족도 및 운동지속에 미치는 영향」, 박상구(2016)의 「씨름지도자의 전문성에 따른 신뢰와 선수만족의 관계」, 김정훈(2011)의 「씨름선수가 지각한 리더십행동과 팀 응집력 및 운동만족도와의 관계」와 같이 씨름 지도자의 역량이 선수의 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조준희(2016)의 「씨름지도자의 리더십유형에 따른 지도자 신뢰가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김상태(2017)의 「씨름 지도자의 멘토링 기능이 선수의 자기관리 및 경기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지도자의 역량과 경기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 진상훈(2003), 「씨름선수가 자각하는 운동탈진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박상구(2016), 「씨름지도자의 전문성에 따른 신뢰와 선수만족의 관계」, 신창호(2016), 「민속씨름 지도자-선수관계가 팀 몰입 및 선수만족에 미치는 영향」,

김경수(2011)의 「씨름선수의 자기관리가 자신감, 성취목표지향성 및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이슬기(2015)의 「씨름선수의 자기관리가 운동 자신감 및 운동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선수의 자기관리요소와 다른 요소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또한 앞서 언급되었던 선수들의 만족에 관한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에 대한 요소 즉 박동휘(2014)의 「대학씨름선수들의 기본심리욕구가 운동몰입 및 운동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민수(2015)의 「고등학교 씨름선수의 사회적 지지가 선수만족도 및 운동지속수행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교육학 관련 연구에는 1970년대에 진행 된 이후 조성탁(2001)의 「체육교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사포트폴리 적용」, 박재철(2002)의 「초등 체육과 씨름 교수-학습을 위한 MTOS의 설계 및 구현」, 이건형(2006)의 「중학교 체육교과 ‘씨름’ 단원의 ICT 학습자료 개발 및 교화에 관한 연구」, 정일남(2012)의 「장애학생의 씨름운동 지도의 실태와 개선방안」과 같은 체육 교육의 종목으로서 씨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최후진(2007)의 「중학교 체육수업의 수행평가 현황분석」, 정지원(2008)의 「중학교 체육 실기 평가 항목과 평가 척도 분석」 이용균(2009)의 「중학교 체육교과 수행 평가 실태분석」 등의 연구에서는 씨름을 체육 실기 수업의 종목으로 직접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평가 항목 개발과 같은 연구들이 진행된 것을 살필 수 있다. 또한 김백중(2005)의 「씨름지도자의 지도유형이 학습유형에 미치는 영향 : 중,고 씨름지도자를 대상으로」, 박강보(2006)의 「초등 체육교과 씨름영역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지도 실태분석」, 천연호(2014)의 「중학교 체육교사의 씨름지도경험과 교직경력에 따른 씨름교육에 대한 인식연구」 등의 연구들은 씨름이 학교 체육 수업으로서 교사들의 인식과 씨름 지도자의 지도 유형에 대한 연구, 즉 씨름의 교육자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씨름의 교수자에 대한 연구와 함께 박정미(2014)의 「스포츠교육모형을 적용한 씨름수업이 학습자의 체육수업 태도,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이슬기(2016)의 「여자 중학생의 씨름 수업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와

같이 씨름의 학습자 관점의 연구도 진행되었다.

2000년대 이후 생리학에 관한 연구에는 체중감량과 씨름 훈련에 따른 생리적 변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진수(2002)의 「씨름 훈련량과 체급이 씨름 선수들의 신체구조, 무산소성 파워 및 혈중 피로물질에 미치는 영향」, 전혜린(2005)의 「성장기 씨름 선수의 훈련기 및 시즌기의 체조성과 영양섭취 상태 분석」, 하주환(2004)의 「서킷 트레이닝이 씨름 선수의 체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노영철(2010)의 「고등학교 씨름 선수들의 일회성 운동이 혈중 Adipoenctin과 Guthormones 농도에 미치는 영향」, 고영준(2014)의 「고등학교 씨름선수의 저항 트레이닝 방법과 시기에 따른 무릎관절 및 허리부위의 등속성 근기능과 무산소성 능력에 관한 연구」와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런 연구는 여러 훈련방법이 씨름 선수들의 훈련법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전문적 트레이닝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들과 씨름에서 사용하는 훈련법에 대한 효과를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하는 연구들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강창호(2001)의 「씨름훈련이 정신지체 학생들의 체력에 미치는 영향」, 김지철(2003)의 「씨름활동이 정서장애 학생들의 체력에 미치는 영향」, 권윤성(2010)의 「씨름 리드업 게임과 기술프로그램 참여가 정신지체학생의 체력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연구들은 씨름 훈련이 정신지체나 정성장애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들로 체육 교육의 방법으로서 씨름의 가치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체육 교육의 한 종목으로서 씨름의 위상을 살필 수 있는 연구들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최병찬(2005)의 「씨름 선수의 장, 단기간 체중감량이 생리적 변화 및 운동 수행력에 미치는 영향」, 오명훈(2007)의 「씨름선수들의 단기간 체중감량이 체력에 미치는 영향」, 한대호(2013)의 「씨름 선수의 체중감량이 스트레스 호르몬과 면역글로불린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연구들은 1980년대부터 수행했던 체중 감량을 한 씨름 선수들의 여러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로 1990년대 보다 더 세부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김병준(2008)의 「고교 및 대학 씨름선수의 혈중지질과 인슐린

저항성」, 박금산(2007)의 「고등학교 씨름 선수의 체급에 따른 대사성 증후군 요인들의 변화」, 허용(2008)의 「경쟁 상황에 따른 대학씨름선수의 심리적, 생리적 스트레스 수준과 면역반응」와 같은 연구들은 씨름 선수들의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생리적 요소에 대한 연구들로서 효율적인 씨름 선수 관리에 관한 연구들이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2000년대 이후 생리학 관련 연구는 씨름 선수에 대한 생리학적 특성 분석이라 할 수 있는 1980년대 체중 감량과 씨름 훈련을 통한 생리학적 변화의 분석적 연구를 넘어서 보다 세부적인 부분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진행되었던 연구 분야들이 보다 효율적인 씨름 선수관리에 필요한 연구로 변화 발전한 모습과 씨름이라는 체육 교육 방법의 가치에 관한 연구들은 체육 교육에서 높아진 씨름의 위상을 살필 수 있다.

2000년대 측정평가연구에는 이성민(2003)의 「씨름선수의 상지 하지 균력 차이가 씨름 기술에 미치는 영향」, 박주복(2004)의 「체격에 따른 초등학생의 스포츠활동 선호도 및 형태 분석」, 허용(2005)의 「대학씨름선수의 체밀도 및 체지방 추정식 개발」, 신용식(2001)의 「고교씨름선수의 주특기에 따른 체력 특성 연구」와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성민의 연구는 신체 구성과 씨름 기술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로 신체 조건과 스포츠 선호에 관한 연구와 씨름을 선호 할 수 있는 신체 조건에 관한 연구이며 이는 씨름 선수 관리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이후 연구는 최성용(2010)의 「대학씨름, 유도, 레슬링 운동선수들의 신체 구성과 무산소성 운동능력 변화 비교」, 김현욱(2011)의 「편측운동선수와 양측운동선수의 팔의 체격차이」, 김민규(2013)의 「씨름 수업이 대학생의 신체구성과 하지부 균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주로 씨름이라는 운동과 신체구성 그리고 그 영향을 고찰하는 연구들로 씨름이라는 종목이 가지는 신체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이라고 할 것이다.

역학관련 연구에는 김태환(2001)의 「씨름 밧다리후리기 기술의 운동학적 특성 분석: 2000년도 천하장사 이태현 선수를 중심으로」 우성돈(2001)의

「씨름 둘배지기 기술의 운동학적 특성분석」, 백성욱(2008)의 「씨름 둘배지기와 안다리 기술의 운동학적 변인 분석」, 곽재환(2012)의 「고등부 씨름선수의 오금당기기 기술의 운동학적 변인 분석」과 같은 전문적으로 씨름의 각 기술에 대한 운동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물론 황규연(2006)의 「씨름 살바 잡기 유형별 상지의 근전도 분석」, 전상필(2006)의 「Plyometric Training이 씨름 선수의 각근파워와 민첩성에 미치는 영향」, 최병찬(2009)의 「요부안정화 운동 프로그램이 씨름선수의 요부 근력 및 균형 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씨름과 관련한 근육이나 근력과 같은 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도 진행되었다.

2000년대 이후 씨름의 역학적 연구는 씨름의 각 기술에 대한 운동학적 분석과 세부적 근육과 근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모습에서 씨름이 체육 역학의 연구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씨름에 관한 민속학 분야의 연구는 학술논문으로 많이 진행되었으나 학위 논문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송지환(2008)의 「강릉단오제 영상분석 연구: 영상민속지 분석 방법론을 중심으로」, 고학우(2008)의 「한•중 단오문화 비교연구」, 양충후(2009)의 「강릉단오제의 스포츠문화연구」와 같이 강릉 단오제 스포츠 문화로서 씨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소가르마(2010)의 「나답축제의 가치 연구: 스포츠와 문화를 중심으로」와 에르덴솝드(2013)의 「한국과 몽골 생활체육의 비교연구」에서는 한국의 씨름과 유사한 신체문화인 몽골의 브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민속학적으로 접근한 씨름관련 연구는 강릉 단오제나 몽골의 나답과 같은 축제 문화와 사회 문화에서 전통적인 스포츠인 한국의 씨름과 몽골의 브흐가 갖는 각각의 의미와 함께 두 신체문화를 서로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씨름의 정책에 관한 연구는 조기찬(2004)의 「씨름의 생활체육 활성화 방

* 황종훈(2010), 「중등부 씨름 선수의 체급별 배지기 기술의 운동학적 변인 분석」, 유영도(2011), 「중등부 씨름선수의 밧다리와 안다리 기술의 운동학적 변인 분석」

** 이경화(2010), 「강릉단오제의 전승 상황 연구」

안에 관한 연구」으로 시작해서 정운화(2006)의 「한국 민속씨름의 현안진단과 재건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수(2006)의 「민속씨름경기의 활성화 방안」, 온형준(2006)의 「민속씨름경기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와 같은 씨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정책에 관한 연구는 주로 IMF 이전에 엄청난 인기의 프로 씨름이 무너지던 2000년대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고민이 담긴 연구라고 생각된다.

2000년대 이후 기술에 관한 연구는 앞선 시대인 1990년대에 진행했던 연구의 내용인 사용 기술, 승부 기술, 살바 잡기, 선제공격과 같은 요인들과 경기 와의 연관성을 고찰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즉 양진관(2000)의 「아마추어와 민속씨름의 기술사용 빈도에 관한 연구」, 이용완(2002)의 「씨름경기의 체급별 기술유형 비교 분석: 중학교 선수를 중심으로」, 유영대(2001)의 「중등학교 씨름경기의 승패를 경정하는 기술 사용빈도 조사」, 이미경(2012)의 「생활체육 여자씨름 선수들의 체급별 경기 기술 분석」과 같은 씨름 선수들의 사용 기술 분석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 진행되었는데, 이는 1990년대 진행되었던 연구들과 유사하나 이미경의 연구와 같이 조금은 더 체계화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2000년대 이후 기술에 관한 연구는 프로 스포츠로서 씨름은 해체되었으나 생활 체육으로서 이미경(2012)의 연구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남자 씨름 뿐 아니라 여자 씨름까지 그 영역이 넓혀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논의했던 살바잡기 싸움과 씨름 선수들의 스포츠 상해와 같은 씨름 경기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도 계속 진행되었다. 살바잡기에 관한 연구에는 이충일(2001)의 「살바잡기 방법의 차이에 따른 씨름경기의 경기시간 비교」, 이상희(2003)의 「씨름선수들의 살바잡기에 관한 인식도 조사」, 정경진(2014)의 「씨름의 살바잡기 규칙 개정에 따른 경기소요 시간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살바 잡기가 경기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씨름 기술과 스포츠 상해에 관한 연구는 김정묵(2006)의 「실업팀

* 장지영(2007), 「한국 씨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실증 분석」, 조성우(2014), 「한국 씨름의 발전과정과 활성화 방안」

씨름선수의 주특기별 스포츠상해 조사 분석」이 있다.

2000년대 상해에 관한 연구로는 김종열(2000)의 「아마추어 씨름 선수들의 부상 발생 양상과 물리치료 이해도에 관한 연구」, 배영수(2003)의 「조, 중, 고교 씨름 선수의 상해에 관한 조사」, 정병학(2005)의 「대학, 실업팀 씨름선수의 스포츠 상해에 대한 조사연구」와 같이 각 선수층에 대한 상해 조사 연구들과 최학성(2000)의 「씨름 선수의 운동 상해 시기와 정도 및 치료방법에 관한 연구: 영남지방의 중, 고,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승삼(2008)의 「씨름선수의 손상 및 치료 시태에 따른 심리사회학적 분석」과 같이 상해 뿐 아니라 치료에 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2010년에는 앞서 2000년의 연구에 더 심화된 연구로 박지환(2011)의 「씨름 선수의 스포츠 상해 및 재활에 관한 연구」와 문환섭(2017)의 「고등부 씨름 선수들의 운동상해 원인 및 상해 처치가 운동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상해에 관한 연구는 처음에는 단지 씨름 선수들의 상해를 조사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그 원인과 치료 방법, 또 치료에 따른 운동 스트레스와 연관성을 찾는 연구로 더욱 심화 되었으며, 이러한 연구의 전문적 심화는 2000년대 이후 체육학 연구의 양적 증가가 더욱 증가되면서 보여지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기타 분야의 연구로는 「청소년 씨름선수의 언어적 처벌 특성과 인지, 정서적 반응」, 「엘리트 선수들의 종목별 지역분포 특성에 관한 조사 연구」, 「씨름선수가 지각하는 씨름 지도자의 코칭 지식 분석」 등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상으로 2000년대 이후 씨름을 대상으로 하는 학위 논문을 살펴보았다. 1990년대부터 체육학의 다양한 학술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던 씨름이란 주제는 2000년대 이후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이면서 더 많은 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통해 일반적인 체육학의 연구 대상으로서 인식되었다는 것을 살필 수 있었다.

* 허용, 박승한(2013), 「씨름연구동향 분석」, pp. 1361-1363.

VII. 결 론

본 연구는 씨름에 대한 연구 중 학위논문을 위주로 시기별, 그리고 학술분야별로 분류하고 이를 분석하여 씨름 연구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960년대부터 2021년 1월 까지 연구된 논문들을 시기적 분석하였는데 이와 함께 분류한 학술분야 별로 다시 분석하여 씨름 관련 연구의 흐름을 정리하였다. 연구자가 분류한 학술 분야는 역사, 철학, 사회학, 심리학, 생리학, 측정 평가, 역학, 정책 그리고 씨름 자체적 영역인 기술과 씨름 경기에서 발생하는 상해 그리고 민속학 11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시기적으로 정리하면 1960년대부터 1970년대 까지는 교육학, 측정평가, 기술관련 연구가 진행되었고, 1980년대에는 역사, 심리학, 철학, 측정평가, 생리학, 역학, 기술 관련 연구, 1990년대에는 역사, 철학, 사회학, 심리학, 생리학, 측정평가, 역학, 기술, 상해 관련 연구, 2000년 이후 연구에는 역사, 철학, 사회학, 심리학, 생리학, 교육학, 측정평가, 역학, 기술, 상해, 민속학의 분야에서 학위 논문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음은 학술분과별 연구 동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씨름에 관한 첫 연구는 비록 학술논문이었으나 역사 분야로 1960년대 1편의 연구로 시작하여 1970년대 6편이 시도되었지만, 학위 논문으로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4편이 시도되었고, 이후 1990년대에는 4편, 2000년 이후 18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초창기에는 한국의 의미 있는 신체문화로서 씨름에 대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후 경기로서 씨름의 변천과정이 함께 시도 되었다.

씨름을 철학적 방법으로 접근한 학위 논문은 1980년대 1편 이후 2000년대 이후 5편이 진행되었다. 2000년대의 미학적 고찰과 도덕성 함양, 씨름선수로서 정체성, 씨름의 원류와 같은 씨름이나 씨름 선수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사회학적 연구는 1990년대 5편으로 시작하여 2000년대 19편, 2010년대 9편이 진행되었는데, 씨름 경기의 마케팅 관련 연구와 스포츠맨십과 같은 다양한 체육 사회학 관점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심리학적 연구는 1980년대 2편으로 시작하여, 1990년대에는 9편, 2000년 13편, 2010년에는 19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생리학 연구는 학술논문이나 학위 논문 모두 1980년대 시작하였다. 1980년대 3편의 연구로 시작하여 1990년대 9편, 2000년 이후에는 25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생리학연구는 주로 씨름 선수들의 체중감량 관련 연구가 총11편이 진행되었고, 여러 훈련과 관련한 생리학적 변화에 관한 연구가 6편 진행되었는데, 주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연구들이다. 이는 프로 스포츠로서 씨름의 위상이 높았던 시기였으며 당연히 씨름 경기에 필요한 연구로서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체격과 체력과 관련한 생리학적 연구가 진행되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씨름운동의 장애 학생들의 체력 향상과 같은 효과에 관한 연구와 같은 씨름에 관한 다양한 생리학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측정평가 연구는 1970년대 3편으로 시작하여 1980년 11편, 1990년대 3편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8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로 근력과 체형이나 체력과 같은 신체적 요소와 경기력과의 관계, 체격과 체형과의 관계와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경쟁력 있는 씨름 선수 선발 및 선수 관리에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가장 많이 연구된 1980년대는 프로 스포츠로서 씨름이 시작한 시기였고 2000년대는 씨름의 재도약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연구 역시도 그러한 시대적 조류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살필 수 있다.

기술에 관련한 연구는 1970년 1편, 1980년대 10편, 1990년대 16편, 2000년대 18편, 2010년대 4편이 진행되었는데, 프로 스포츠로서 활약하던 1980년대부터 2000년대 까지 연구의 양이 많은 것은 씨름 기술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상해에 관한 연구는 학술연구는 1980년대 시작하였지만, 학위논문은 1990

년대 4편, 2000년 이후 13편이 시도되었다. 주로 씨름의 기술별 상해나 체급별 상해, 초, 중, 고, 대학, 실업팀과 같은 시기별 선수들의 상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씨름이 프로 스포츠로서 자리를 잡은 후 부상 선수의 관리에 대한 요구가 많아진 1990년대 이후부터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민속학적 연구는 학술 연구에서는 1970년대부터 2000년 이후까지 45편의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학위논문은 2000년대 이후 7편이 시도되었는데, 주로 중국이나 일본, 몽골의 문화적 비교 연구에서 씨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전반적으로 체육학 연구가 시작한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는 교육학 3편과 측정평가 3편 그리고 기술 관련 1편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씨름이라는 신체문화를 체육교육의 관점으로 접근한 시기라고 할 것이다.

이후 전문적인 프로 스포츠로서 씨름이 시작한 1980년대 32편의 연구들은 씨름 경기라는 것에 관점을 두고 경기 운영에 필요한 선수 선발 및 선수 운영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 되었다. 이어 민속 씨름이 최고 전성기에서 쇠퇴기가 시작한 1990년대의 5편의 연구는 기존 보다 다양한 체육학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이며 주로 선수 관리적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던 것을 살필 수 있었다. 2000년부터는 1990년대 보다 더 다양한 체육학 방법이 씨름이라는 종목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195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허용·박승한(2013)의 연구에서 2000년 이후를 체육학 전반적인 연구의 양이 증가되었던 시대적 환경에서 기인하지만 또한 생활체육의 인기 종목으로서 그 영역이 넓혀지는 씨름의 위상이 있었기 때문 일 것이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씨름이라는 종목이 한국 체육학 연구 대상으로 확실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씨름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한국의 신체 문화를 넘어 세계의 신체문화로서 그 위상을 넓혀 가야 하는 시기인데 이에 합당한 연구는 아직까지 시도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의 신체문화로서 씨름의 연구 방향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일본의 쓰모나 몽골의 브흐와 씨름을 비교 연구했던 민속학 연구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을 것

이다. 즉 서로 타격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힘과 기술을 겨루는 신체 문화는 세계적으로 많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신체 문화와의 상호 비교 연구를 통해 씨름에 내포되어 있는 운동학적이며 문화적인 동질감과 독창성을 분석하여 세계적인 신체문화로서 씨름의 가치를 찾는 것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다른 지역의 신체문화와 함께 비교 할 수 있는 운동학적 분석 방법과 같은 연구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제언해본다.

참고문헌

- 김달우(1998). 한국체육학 발전 과정의 역사적 고찰 -한국체육학회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체육사학회지, 3(1). 1-10.
- 김종규(1999). 한국 씨름의 체육사적 의미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학웅(2009). 김학웅의 씨름이야기. 민속원.
- 민상근, 옥광(2009). 씨름의 원류와 문화적 진화.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4(1). 15-28.
- 에르텐솝드(2013). 한국과 몽골 생활체육의 비교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허용, 박승한(2013). 씨름연구동향 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22(3). 1355-1365.

ABSTRACT

A Study On Research Trends Related to Ssireum

Kim, San(Jeonbuk Univ.) · Kim, Dong-Su(Jeonbuk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ssertation on Ssireum, which was registered as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n 2019, to examin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existing Ssireum-related research. I searched. Korea Ssireum, which has a long history, has been a representative body culture in Korea that has enjoyed a lot of popularity so far, and a lot of research has been conduct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search on Ssireum, in the 1970s, when the study was first started, a study to explore its value as an item of physical education was conducted, and in the 1980s, various desires for areas that could manage it as a professional sports were expressed. It was possible to look at the progress of the studies.

Since then, the popularity of Ssireum declined in the early 2000s, but it reached a period of leap forward again from 2006, and during this period, it was possible to consider the progress of studies using various academic methods. It can be seen that the current Ssireum event was clearly recognized as the subject of research in Korean physical education. However, as a global body culture, studies comparing similar body cultures of other regions with kinematic and cultural homogeneity and originality have not yet been conducted, and for this, the development of a research method that can be compared with body cultures of other regions is required.

Key words: Ssireum,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논문투고일 : 2021.03.30.
심사일 : 2021.04.02.
심사완료일 : 2021.04.30.